

마라고 하면 여름에 청량하다는 연상이 떠오른다

땀을 흘리는 한여름에 긴 소매 셔츠와 넥타이, 진한 색상의 양복을 입고 있어도 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시원스런 얼굴을 하고 있다. 이것이 남자의 모습이다. 한마디로 찌는 듯한 무더위인 대구에서는 영국신사들이 입는 북방한대계의 의복 즉, 양복을 입고 업무활동을 한다는 것은 무리수이다. 가볍고 시원하다는 범주 하에 몇몇 회사가 여름용 신사복의 시원함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시원한 섬유라 함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물론 천연소재 중에는 마를 들 수 있다.

먼저 마라고 하면 여름에 청량하다는 연상이 떠오를 것이다. 지금까지는 마소재로 만든 의복이라고 하면 아마(linen)라든가 저마(ramie)를 사용한 것이었다. 여기에 대마(hemp)가 있으며 이 또한 마의 일종이다. 대마라고 하면 마약을 연상하는데 마약이라 함은 양귀비에서 취한 아편이라든가 그것을 정제하여 만든 모르핀·헤로인 등이 있다. 대마의 잎이나 꽃이 마리화나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대마의 소유 사용 판매 등이 금지되어 있는 것은 대마의 줄기라든가 종자 이외의 부분이다. 섬유는 줄기 부분이다.

대마는 우리 나라에서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저기에서 재배되고 있었는데, 1970년대 초 연예인들의 무분별한 흡연으로 인한 대마초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농촌의 한구석에서는 농가의 수입원의 하나로 누구나 허가 없이도 재배하고 있었다. 그러한 사건이 있은 후 우리 나라에서는 대마관리법(1976. 4. 7. 법률 제 2895호)으로 재배 및 취급을 규제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재배하지 못한다.

섬유는 마포·마승(삼의 껍질로 꼰 노끈)·로프·범포·모기장·방석·짚신 등에 이용하고 있었으며, 종자는 벼·콩·보리 등과 더불어 곡물의 하나였다. 종자로는 식용유라든가 등유를 얻어냈고, 대마는 한방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종이 합판 재생섬유를 얻기도 한다. 비료라든가 농약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으며, 바이오 매스(식물연료)가 된다는 점에서 역시 지구환경에 친숙한 섬유라고 할 수 있다.